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美, “테러범은 물론 가족·동조자도 비자 취소하고 추방할것”
 - 6.3 美 국무장관 「마코 루비오」는 콜로라도 행사 현장 근처에서 발생한 화염병 사건 관련, 향후 테러 발생시 체류중인 테러리스트와 그 가족 구성원·동조자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
 - ※ FBI는 12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를 ‘테러 행위’로 보고 수사중이라 부언

유 럽

- 러, 테러·사기·사이버 위협 예방을 위한 외국인 생체정보 요구
 - 5.28 언론은 러시아가 지난해 3월 ISIS-K의 ‘크로커스 시티홀’ 테러 이후 외국인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검문소에서 입국하거나 自國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한다고 보도
 - ※ 러시아 디지털개발부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, 한국인 등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앱을 통해 얼굴사진 등 정보 사전 제출 필요
- 전직 러시아軍 장교, 북캅카스에서 폭탄 공격으로 사망
 - 5.30 언론은 북캅카스 스타브로폴市 시장인 전직 러시아軍 장교가 한 주차장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로 사망했으며, 당국은 폭발로 사망한 해당 장교의 지인을 사제폭발물을 터뜨린 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사망한 전직 장교가 러-우 전쟁에서 민간인 2만 명이 사망한 마리우폴 포위 공격의 지휘관으로, 관련 공적으로 여러 훈장을 받았다고 부언
- 英, 그룹 채팅으로 테러 선전물 공유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
 - 5.30 언론은 '22년부터 '23년까지 테러 선전 및 자금 조성에 연루된 4명이 도합 약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, 경찰은 이들이 그룹채팅방을 통해 선전물 유포와 테러조직을 위한 지원금을 모으는 등 활동하였다고 보도
 - ※ 경찰은 현금, SIM 카드, 휴대폰을 압수 後 분석한 결과 테러범들의 IS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 표현을 발견했다고 부언

중 동

○ 이스라엘, 對드론 레이저 요격체계 도입 발표

- 5.29 이스라엘 국방부는 헤즈볼라 등이 날려보낸 드론의 날개를 레이저 빔으로 잘라내 격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으며, 새로 개발한 레이저 요격체계를 조만간 정규 방공망에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발표
- ※ 언론은 기존 ‘아이언돔’에 쓰이는 요격 미사일이 한 발당 5~10만 달러인 데 반해,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몇 달러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다 부언

○ 레바논, 이스라엘 정보 받아 자국남부 헤즈볼라 해체

- 5.29 언론은 레바논 정부군이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하는 데 이스라엘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, 레바논 「나와프 살람」 총리는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는 목표를 약 80% 달성했다고 발표

아프리카

○ 아프리카, 미국 원조 프로그램 축소로 무장세력 증가

- 5.28 언론은 「도널드 트럼프」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 원조를 축소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무장세력이 증가했으며, 특히, 소말리아에서는 「알샤바브」의 영향력 확대 및 「후티 반군」와의 밀착 등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보도
- ※ [2014년 설립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거버넌스, 정치, 안보 분야에 특화된 연구기관](#) 사한 리서치(Sahan Research)에서는 “알샤바브의 영향력 확대가 아프리카와 중동 대부분 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”이라 부언

○ 우간다, 순교자의 날 기념 행사 관련 테러리스트 2명 사살

- 6.3 우간다 방위군은 ‘순교자의 날’ 기념 행사를 표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범 2명을 제거했으며, 그 중 1명은 여성으로 강력한 폭탄을 숨겨 자살폭탄 테러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무력화했다고 발표
- ※ 언론은 ‘순교자의 날’은 동아프리카 최대 종교 행사 중 하나로 매년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 순례객들이 모이는 행사라고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영국 런던市, 차량 돌진·흉기 테러

- '17.6.3 런던 중심부 런던브리지와 보로마켓에서 차량·흉기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, 8명 사망·48명 부상
 - 테러범들은 밴을 몰고 런던브리지를 통행하면서, 차로 옆 보행자 전용 인도 위에 있는 행인들을 향해 고의로 돌진하였으며
 - 교량 끝단 보로마켓 쪽으로 이동해 차량을 버린 후, 식당가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흉기 공격 자행
- ※ 테러범들은 공격 중 “알라를 위해”라고 외쳤으며, 경찰에 의해 3명 전원 사살
- 同 지역은 식당과 술집이 밀집한 곳인데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인 주말에 테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가중
- 사건 직후 「테리사 메이」 영국 총리는 긴급 ‘안보회의’([코브라 회의](#))를 소집하고, 테러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
- 한편, 同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한 세력은 나오지 않았으나, 정보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영향을 받은 불순세력들의 모방테러로 평가

테러 상식

< 英 코브라 회의 >

- (명칭) 英 안보회의(COBRA, Cabinet Office Briefing Rooms)
- (목적) 英 정부의 비상대책회의실을 의미(청와대 국가안보실·백악관 상황실 등과 유사)하며, 영국 총리나 총리비서관, 영국 외무장관 등이 특수부대, 전략 드론 운용 등의 비밀작전을 실시간 총지휘
- (同 기구의 주요 국가 대테러 관련 회의)
 - '80년 駐영국 이란 대사관 테러(사망 6, 부상 3)
 - '09.7 런던 지하철·버스 겨냥한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00여 명)
 - '15년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테러(사망 23명, 부상 500여 명)